

첨단의학의 대체의학

# “치료보다 예방 위한 노력 우선돼야”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어진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의학이라면, 주로 경험을 통해 얻어진 사실들을 건강관리 기술로 이용하는 것이 소위 대체의학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최소한 현대의학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기원전 3세기 히포크라테스시대 이후 거의 항상 공존해 왔다.

물론, 이들의 공존상태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의학이 모두 필요해서라기보다 현대의학의 기능 정도에 따라 대체의학이 그 영향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함께 존재해 온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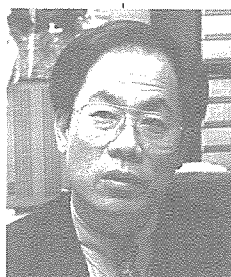
말하자면 대체의학이 현대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형식이었고, 따라서 둘 사이는 어찌 보면 공존 상태라기보다 일종의 긴장상태로 존재해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우리나라 암환자의 53% 대체요법 의존

현대의학이 질병예방이나 치료기능을 제대로 할 때는 그만큼 대체의학이 설자리를 찾지 못했고, 반대로 현대의학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대체의학이 크게 사람들 사이에 이용되는 형태였던 것이다.

이런 대체의학이, 21세기 최첨단 의학시대라고 하는 지금 오히려 다른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대체의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전



孟光鎬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국적인 조사연구가 없어서 그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몇 해 전 서울지역 3개 대형병원 암 환자 약 3백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환자의 53.0%가 병원에서의 치료방법 이외에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일은 이들 민간 대체요법을 사용한 암 환자 가운데 무려

92.7%가 자신들이 의존했던 대체요법에 대해 다소라도 효과가 있었거나 최소한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이런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일고 있는 일이 아니다. 현대 첨단 의학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이미 1990년대 중반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에 「대체의학과」(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설립하고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민간 대체요법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부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이 이에 대한 과학적 효과를 밝혀보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현대의학 기능못할때 대체의학 성행

첨단과학시대에,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대체요법이 이처럼 성행하고, 이에 따라 이런 대체요법을 체계화하려는 대체의학에 대한 관

지난 세기 동안 오직 치료기능 확대에만 노력해온  
현대 첨단의학이 치료기능의 한계에 부딪치자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대체요법이 성행하게 되었다.

심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지난 약 1세기 동안 오직 치료적 기능 확대에만 노력해 온 현대 첨단의학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치료적 기능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던 전염성 질환의 원인세균이 발견되고 이들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개발되기 시작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의학은 가히 '제왕적 과학'으로서 그 위력을 크게 발휘한 것이 사실이다.

그때까지 단지 환경을 깨끗이 하거나 발생된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질병의 전파를 막는 정도의 예방 의학적 노력으로 최소한의 건강 유지와 질병 관리를 해오던 시대에서 수액이나 항생제 같은 적극적인 치료약물로 한 순간에 수많은 환자를 구해낸 치료적 의학의 위력은 사실 대단한 것이었다.

이 일은 결국 의학이 온통 치료적인 일에만 전념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실상 이후 의학은 환자 치료를 위한 소위 의료적 패러다임이 지배를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후의 의학은 더 이상 세균성 질환을 정복했던 항생제의 위력 같은 것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은 20세기 이후 질병양상이 근본적 치료가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령,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이 대부분인 오늘날은 일단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로 남아 있거나 치료가 안 되어 사망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이다.

**만성질환 환자 민간 대체요법에 관심**

병원에서 의사가 주는 약만으로 지루한 투병생활을 해야 하는 환자들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여러 가지 민간 대체요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민간 대체요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미국 국립보건원 같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이를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런 일인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게 마련이고 이 경우 좀더 과학적인 내용의 공급을 위해 국가 연구기관이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한방의료를 한의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하는 일 말고 달리 여러 가지 대체요법에 대해서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결국 다양한 민간의료 관행이나 이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 모두 따지고 보면 현대 첨단의학이 그 치료적 기능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만은 분명하다.

원래 건강은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두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모든 질병은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노력해야하고, 그것이 안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학은 건강문제를 치료에만 의존**

세균성 전염병들에 대해서 처럼 비교적 손쉬운

치료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예방노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곧 치료를 통해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만, 지금처럼 완전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생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곧 사망을 하게되는 질병이 빈발하는 경우는 예방을 위한 노력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현대의학은 오로지 건강문제를 치료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 같은 의학의 치료적 패러다임은 세균성 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했던 시기의 치료성과에 대한 현대의학의 오만이 그대로 유지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진단이나 치료기술 개발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업가들의 경제적 동기와 참여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요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소위 BT로 불리는 생명과학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가장 큰 동기는 역시 이 일을 통해 돈을 벌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기술개발이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온 난치병들을 치료함으로써 이들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을 높게 된다면 더없이 바랄 것이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사람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했을 때 지금은 건강행동을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노력이 다른 무엇보다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적어도 많은 질병 역학적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암이나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 같은 질병발생과 결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흡연이나 지나친 음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같은 건강위험 요인들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유명한 의학자이며 저술가인 르위스 토마스박사는 의학기술을 비 기술(non-technology)과 반 기술(half-technology), 그리고 참 기술(true technology)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일이 있다.

## 일본, 2차대전 직후 예방보건에 신경

그가 말하는 비 기술은, 환자를 애정으로 돌보는(caring) 기술을 말하며, 반 기술은 예컨대 병든 장기를 인공장기나 다른 사람의 장기로 바꾸어주는 수술 같은 기술을, 그리고 참 기술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고치거나 다시는 그 원인으로 인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는 의학에 있어서 이 세가지 기술이 모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특히 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이 진정한 의학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기초 의학적 연구와 예방 의학적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발생된 난치병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남녀 평균수명 80세를 즐기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제2차 대전 직후부터 일본은 영·유아 사망을 줄이기 위한 모자보건활동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식생활과 환경위생 개선 등 여러 가지 예방보건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큰 성공을 거두어 왔기 때문이다.

치료 기술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의 평균수명 차이란 순전히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의 차이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생활의 과학화란 단지 과학적 산물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상생활 자체를 과학적 지식과 이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흡연이나 지나친 음주, 그리고 운동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난치성 질병에 걸리고 난 후에야 이를 치료해 보려고 그 과학적 효능조차 알려지지 않은 대체요법에 의존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⑤7